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
: 고통 감내력의 조절효과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정 윤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
: 고통 감내력의 조절효과

김정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 정 윤

인 준 서

김정운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대학원을 수료하고 4년이 지나서야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포기할까도 여러 번 생각했었는데,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고마운 분들 덕분에 논문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표씨, 직장 생활하느라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집안 일과 아이들 챙겨줘서 많이 고마웠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우리 아이들, 연우, 유민, 다인이. 엄마가 논문 쓰는 동안 잘 보듬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엄마 공부하라고 서로 잘 놀아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김정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답하는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꼼꼼히 논문 봐주시고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영일 교수님, 박혜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슈탈트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도와 준 명규오빠, 대학원 내내 부족한 후배 잘 챙겨주고 도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오빠처럼 챙겨 준 상하오빠, 첫 학기에 집단상담 볼 수 있게 기회도 주고 많은 부분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민석오빠, 바쁜 시간 쪼개 부족한 부분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매번 힘을 넣어주는 고마운 인연, 주호교수님. 고맙습니다. 열정적인 삶을 사는 멋진 내 친구 지훈교수님, 큰 도움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너의 자리가 있으니 언제든 돌아오라고 격려해주시는 최창호 박사님, 마음씨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대학원 2년 동안 함께 해준 27기 동기들. 떠나고 오니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박상규 교수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학하고 진로로 방황할 때, 넓은 시야로 세상을 내다볼 수 있게 도와주신 주호진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부족한 머느리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는 시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며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던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야누아리오 신부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나의 오빠. 언제나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개요

본 연구는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두 변인 사이에서 고통 감내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충청북도와 강원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 300명이었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와 빈도분석, 상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을 한 정도는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기에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다른 변인들의 영향 없이도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둘째, 고통 감내력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 고통 감내력은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한 결과,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관계에 있어 고통 감내력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은 정도에 따라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이 두

변인 사이에서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개인은 성인기에 이르러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면 정서적 학대를 아동기 시절에 경험했다더라도 성인기에 경계선 성격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시절 경험한 정서적 학대로 인해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나타내는 내담자의 상담에서 고통 감내력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고통 감내력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1) 연구 문제	6
2) 연구 모형	7
II. 이론적 배경	8
1. 정서적 학대	8
1) 정서적 학대의 개념	8
2)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영향	9
2. 경계선 성격장애	11
1) 경계선 성격장애의 개념	11
2)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과 특징	12
3. 고통 감내력	15
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 장애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	17
1)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경계선 성격 장애와의 관계	17
2) 경계선 성격 장애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	19
III. 연구 방법	21
1. 연구 대상	21
2. 측정 도구	21
3. 자료 분석	24

IV. 연구결과	25
1. 인구 통계적 특성	25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26
3.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32
4.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32
5.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34
6.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의 조절효과	35
V. 논의	38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38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40
참고문헌	42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자료의 인구 통계적 특성	25
<표 2> 정서적 학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27
<표 3> 경계선 성격 장애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29
<표 4> 고통 감내력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31
<표 5> 주요 변인들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32
<표 6> 상관관계분석	33
<표 7> 성별 차이검증	34
<표 8> 종교별 차이검증	35
<표 9>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고통 감내력의 조절역할	37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7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의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안정된 공간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서로 건강한 상호작용을 한 경우 심신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부적응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인 학대는 개인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가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10대 아들이 수년 간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적, 폭력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 문을 잠그고 시체를 방치한 사건이 있었다¹⁾. 이처럼 아동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혹은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정서적 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장기적인 심리적 기능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관계 능력을 손상시키고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인, 김은정 2007).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처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아동 학대 발생 건수에서 신체 및 성적 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013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사례 10,231건 중 정서적 학대가 3,843건(37.6%), 신체학대 3,160건(30.9%), 방임

1) 국제신문 2013년 5월 29일자

2,848건(27.8%), 성 학대 380건(3.7%)으로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 2013). 그런데 정서적 학대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어느 정도가 학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와 아동 간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채혜정, 1993). 부모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아동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쉽게 인지가 가능한 신체적 학대에 초점이 있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정서적 학대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정서적 학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정신병리 현상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선행연구는 정신병리 현상에 대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영향을 증명하고 있는데(Gross, 2000). 홍수연(2013)과 라영선(2009)의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정신병리 성향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부모의 성, 경제력, 알코올 중독 여부에 관계없이 정신병리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right, 2009).

하지만 지금까지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주로 학대 당시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때문에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가 추후 성인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정신병리 현상이 유발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Longitudinal research)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불안감, 우울증, 폭력성향, 대인관계, 경계선 성격장애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eller, Bachman & Moeller, 1993). 또 Bornovalova, Gratz, Delany-Brumsey, Paulson과 Lejuez(2006)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중에서 정서적 학대만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학대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연구에서도 두 변수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위와 같이 정서적 학대 경험은 성인기 성격장애 발달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SM-5에서는 성격장애를 반사회적/정신병질적, 회피성, 경계성, 강박성, 분열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이러한 성격장애 중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것이 경계선 성격장애이다(Widiger, & Trull, 1993). 경계선 성격장애는 인지과정, 자아, 행동, 및 정서 등의 조절장애로 정서적인 혼란 상태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자살시도나 의도적인 자해 등의 충동성과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Putnam & Silk, 2005). 경계선 성격장애는 일반 인구에서도 약 6%의 높은 비율로 진단되어(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Paris, 2002; Torgersen, Kringlen, & Cramer, 2001). 즉, 진단이 내려진 집단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수준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는 개인도 일반 집단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Trull, 1995).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성향을 보이는 개인이 성격장애만큼 심각한 기능상의 손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Beck, Freeman, & Davis, 2007), 경계선 성격장애가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증후군으로 발전하기 전, 장애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인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로(홍상환, 김영환, 1998) 임상집단뿐만 아니라 비임상집단에 대한 연구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고

된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다.

아동기의 학대 경험, 특히 정서적 학대 경험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섭, 신민섭, 이훈진, 2007; 박혜원, 손정락, 2012; Gratz, Litzman, Tull, Reynold, & Lejuez, 2011). 하지만 아동기에 같은 정도의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경계선 성격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두 변수 이외의 제 3의 변수에 의해 두 변수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음을 가정할 수 있다. 제 3의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인 고통 감내력을 적용하였다.

고통 감내력은 유발된 정서적 불편감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행동경향성을 의미한다(Simons & Gaher, 2005). 즉,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한 후 이를 견디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고 자 하는 인지적·신체적 과정의 결과이다. Linehan(1993)에 따르면, 정서적 고통에 대한 감내력 부족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기제이며,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고통 감내력이 낮기 때문에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고 보았다. 박성아(2010)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고통 감내력과 부적 관계를 보여 두 변수 간의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통 감내력이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난 이후, 주요한 연구의 흐름은 고통 감내력의 치료에 두고 있다. 고통 감내력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용전념치료 혹은 변증법적 행동치료 등의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고통 감내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장하연, 2012). 그 이외에 고통 감내력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관계(정지현 & 권석만, 2013)등에 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박성아(2010)외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본 연구는 20대 성인의 대표성이 있는 대학생에 주목하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인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 대한 고통 감내력의 조절역할을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과정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비임상집단을 위한 초기 상담과 치료적 접근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고통 감내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설 1.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고통 감내력은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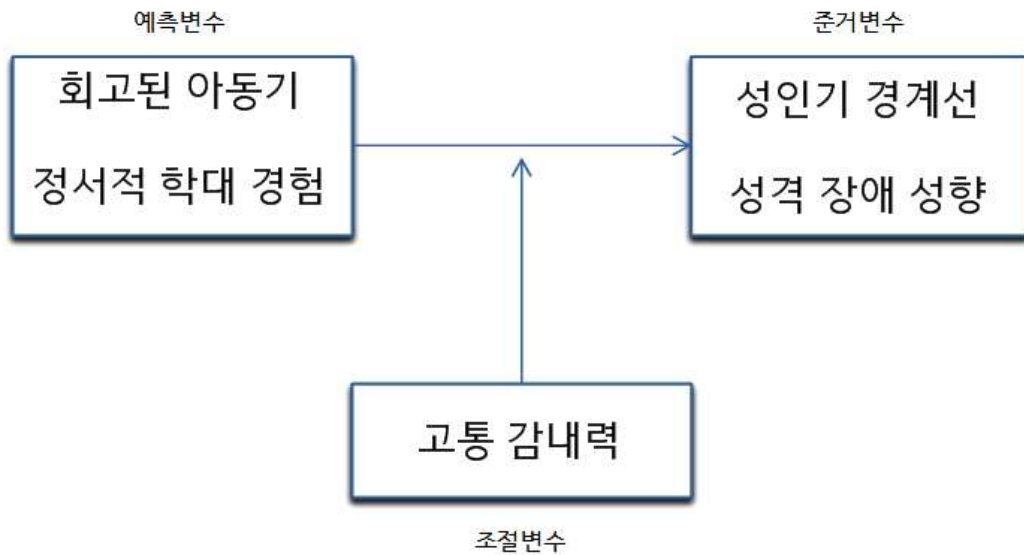
가설 3.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고통 감내력은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을 예측변인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고통 감내력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변수들을 통해 [그림 1]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정서적 학대

1) 정서적 학대의 개념

정서적 학대의 개념에 앞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1962년 미국에서 Kempe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으로 ‘피학대 아동 증후군(the battered-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초기에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아동 학대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나(Leventhal, 2003, 재인용), 후에 신체적 학대 이외에도 정서적, 성적인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혀 좀 더 광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문나영, 2009).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2000년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정의내리고 있으며, 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학대 행위로서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소극적 학대 행위로서의 방임 등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정서적 학대이다. Szur(1987)은 “정서적 학대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탈 행위에 대해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고, Steel(1980)은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자녀를 경멸하고 모독하며, 책임 전가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 비신체적 형태의 적대적, 거부적 형태를 의미한다.” 고 정의하였다. 또한 Straus(1991)는 언어적, 상징적 공격을 중시하였는데, 상대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 시키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진 의사소통을 정서적 학대라고 정의하면서 언어적 공격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2011)에서 정의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이고, 고성혜(1992)는 아동을 정서적, 지적 불구로 만들고,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며,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주양육자의 고립적인 행동패턴이라고 정서적 학대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학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더 넓게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고립시키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혹은 타락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²⁾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학대 구성개념이 아직 확립된 것은 아니다. 연구에 따라 심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부당한 심리적 취급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최지원, 2014).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성인기에 이르러 과거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를 회고하여 설문하였기에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영향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koreal391.org/new_index/

아동기 경험은 성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알려져 있다 (Pianta, Egeland, & Erickson, 1989). 구체적으로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접한 환경과 인간관계는 성인기의 복잡다단한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의 성장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Perterson & Rollis, 1987). 그런데 2013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총 10,231건의 아동학대 피해사례 중에서 8,369건으로 전체의 81.8%나 차지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있어 정서적 학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문제를 야기한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우울, 불안, 자살, 물질 사용의 위험이 높았고(김혜련, 1994; Hornor, 2008b; Hornor, 2010), 자존감, 수치심, 무가치감, 공격성과 사회적 철수가 비교적 높았다(김아다미, 2001; 추소정, 2002; Hornor, 2012). Kent와 Waller(1998)는 아동학대 중 다른 유형보다 정서적 학대가 우울과 불안을 더 잘 예측함을 밝혀냈고, Brier와 Runtz(1988)의 연구에서는 다른 학대 유형을 통제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가 대인관계 민감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조현정, 2014)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아동의 대인관계 미성숙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장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고,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기술 또한 부족하다(장조현, 2004). Brenner(1984)는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고 자기 파괴적인 동시에 수동적이기도 하여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학대는 아동기 당시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Hart, Binggeli & Brassard, 1998). Spertus 등(2003)은 아동기 시절에 발생할 수 있는 여타의 학대의 외상 경험을 통제한 후에도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불안, 우울 그리고 신체화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기에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섭식문제, 우울, 불안, 해리, 낮은 자존감, 경계선 성격 특성, 공격성 등 많은 문제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현정, 2014 재인용). Ferguson등(1997)에 따르면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받은 성인 여성에서 불안, 우울 및 해리 증상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보다 확연히 높았다. 그리고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성인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과 우울, 대인간 예민성, 낮은 자존감 및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였다(Braver et al., 1992).

이러한 장기적인 손상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가정사’ ‘남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이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개입이 어려운 정서적 학대는 장기간 고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학대 이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2. 경계선 성격장애

1) 경계선 성격장애의 개념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는 일반적으로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는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대인관계, 정체성의 혼란, 강렬하고 잦은 정서변화, 충동적 행동 및 자기-파괴적 행동패턴 등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 개인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드는 장애로 정의된다(APA, 1994). ‘경계선(borderline)’이란 용어의 기원은 원래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라는 의미로 환

자가 정신증적 증상과 신경증적 증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치료자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을 때부터 경계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조성호, 2012).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증적 증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으나 일시적으로 현실 검증력이 저하되고 충동 및 감정 조절에 심각한 곤란을 나타내는 경우, 이를 경계선 장애라고 지칭하였다(권석만, 2003). 정신 분석 이론에서 쾨버그(Kernberg, 1975)는 정신증도 아니고 신경증도 아니면서 심각한 성격 병리를 가진 환자들에게 경계선 성격조직(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계선 성격장애를 표현하였고, 그린커(Grinker, 1968)는 경계선 증후군(borderline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쾨버그의 경계선 성격조직이나 그린커의 경계선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일련의 경계선 행동이나 증상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경계선의 명확한 용어 정의가 부족했었는데(조성호, 2012), 1980년 DSM-III-R에 이르러서야 경계선 관련 증상이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2)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과 특징

DSM-5 section II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9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한다.

- (1) 실제 또는 가상의 유기(abandonment)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 (2) 극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양식
- (3) 정체감 혼란: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자아상 또는 자아감
- (4)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남

- (5) 반복적인 자살 행동, 자살 시늉, 자살 위협, 자해 행위
- (6)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
- (7) 만성적인 공허감
- (8)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또는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움
- (9) 일시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망상적 사고 또는 심한 해리 증상

경계선 성격장애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부터 대부분 시작되고, 입원환자뿐 아니라 외래환자에서도 자주 진단되는 성격장애로서(Widiger & Trull, 1993),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2%로 추정되며(APA, 1994),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 중 약 20% 정도가 경계선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행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발생 빈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1996년 서울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류인균 교수가 서울 시내 세 개 대학의 여대생 285명을 조사한 결과, 5.6% 정도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성호, 2012).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 75%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Stone, 1990), 가족 중 약물과 관련된 심리적 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기분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성호, 2012).

위에서 언급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비임상집단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Trull, 2001). 경계선 성격장애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주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최근의 경향은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늘고 있고(김지선, 현명호, 2012; 김상섭, 신민섭, 이훈진, 2007), 국내에서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성향과 정서인식, 정서조절, 강도, 반응, 애착 등 개인의 특징을 알아본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계된 연구(홍수

연, 2013; 이종환, 2013; 최중현, 2013; 이영은, 2012; 민지영, 2012)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연구하는 이유는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유발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완전한 증후군 수준 이전의 경계선 특성이 있는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다(Trull, 1995).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성격장애로 진단되는 사람들은 융통적이지 못하고 부적응적이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비임상집단의 모든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면은 찾아볼 수 있다(Trull, 1995). 둘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약 6%의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셋째,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장애를 전형적으로 나타내거나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Cohen & Cohen, 1984). 즉 진단적 공존 질병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 해석과 치료적 효과가 어렵다. 넷째, 경계선 성격장애는 청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고 실제 유병률도 젊은 성인에서 가장 높은(Stone, 1990)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을 Leib, Zanarini, Schmahl, Linehan과 Bohus(2004)는 정서적 혼란, 인지영역 혼란, 충동성, 그리고 불안정한 대인관계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정서적 혼란은 일종의 혐오스런 긴장 상태로서 슬픔, 염려, 공허, 그리고 고독함 등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 인지영역 혼란은 망각, 환각 등의 정신적 증상, 사고력 장애를 의미한다. 충동성은 자살행위나 신체적 정신적 자해행위 등의 일반적 충동이며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대인관계는 혼자 있는 것을 피하고 타인과 필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하는 하는 것으로 타인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3. 고통 감내력

1) 고통 감내력의 개념

독일의 작가 에리히케스트너(Erich kastner)는 “요람과 무덤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다. 즉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힘든 일을 마주하고 해결해나가면서 살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유발하는 힘든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이다. 어떤 이는 고통을 잘 견디며 긍정적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부정적 방향으로 풀어나간다. 최근에는 고통을 잘 견디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여러 정신병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이 있다(Zvolensky & Otto, 2007).

고통 감내력(Distress Tolerance)은 주관적으로 혐오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태를 견디는 능력으로 정의된다(Zvolensky, Leyro, Bernstein, & Vujanovic, 2011). 관련된 개념으로는 ① 모호함에 대한 감내력(Frenkel-Brunswik, 1948) ② 신체감각의 불편한 정도를 견디는 능력의 개인차로 정의하는 불편감 감내력(Schmidt & Lerew, 1998) ③ 불확실성에 대한 감내력(Buhr & Dugas, 2002) ④ 부정 정서 상태를 회피하지 않고 견디는 고통 감내력(Simons & Gaher, 2005) ⑤ 좌절에 대한 감내력 (Harrington, 2005)이 있다. 이렇듯 고통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고통 감내력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 내려진다. 하지만 고통이 생기면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행동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Simons & Gaher, 2005)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견디는 고통 감내력 개념을 사용한다.

고통 감내는 개인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

하고, 현재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경험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세를 무판단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므로 현실 수용이 현실 용인과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다(Linehan, 2014).

이와 같은 의미의 고통 감내력은 최근에 비로소 임상 현상과 연구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Zvolensky, Bernstein, & Vujanovic, 2011).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 치료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인이 고통을 감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Linehan, 2014). 고통 감내력은 불안, 기분, 성격 장애 등 다양한 정신 병리의 유발과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고(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 국내에서도 성격 장애와 섭식 장애,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치료요인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Simons와 Gaher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고통 감내력이 낮은 사람은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다루기 힘든 것으로 지각하고, 고통을 수용하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에 주의를 빼앗겨 감내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고통 감내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인 고통 감내력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아(2010)가 개발한 한국판 고통 감내력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고통 감내력은 조절, 감내력과 몰두, 평가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졌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고통 감내력이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통 감내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정지현과 권석만(2013)에 따르면,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탈중심화가 어렵고 회피적 대처를 많이 함으로써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탈중심화를 잘하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박성아(2010)의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감내력이 경계선 성격성향에 부분 매개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즉,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경계선 성격성향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낮은 고통 감내력은 불쾌감 수준의 상승, 초기 청소년기 음주의 높은 빈도, 성인의 약물남용 및 재발, 열악한 약물남용치료의 성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통 감내력은 주로 폭식 행동, 자해, 약물 남용 등의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Anestis et al., 2007; Buckner et al., 2007; Nock & Mendes, 2008, 양혜미, 2013).

또한 최근 인지행동에서는 고통 감내력을 높이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는데, 통합적인 행동적 부부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인지치료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고통 감내력을 치료요인으로 다루고 있다(장하연, 2012).

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 장애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

1)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경계선 성격 장애와의 관계

외상적 사건(traumatic events)은 한 개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스트레스 사건을 말하는데(조성호, 2012), 아동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외상적 사건들이 후에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Marziali, 1992). Zlotnick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외상적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격장애 발병의 핵심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 병리와 정서적, 신체적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pertus, Yehuda, Wong, Halligm, & Seremetis, 2003).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자율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Linehan(1993)은 자녀의 정서가 무시되는 환경 즉, 자녀를 과잉 통제하고 잦은 비난과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정서 조절, 고통 감내력, 자기 통제 기술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Zweig-Frank와 Paris(1991)의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동기 때 부모님 모두 아동에게 통제적이고 관심이 적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연구에서도 경계선 성격 장애 특성을 지닌 청소년은 어머니가 덜 다정하고 자율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간섭을 많이 하고 과잉보호했다고 보고하였다(남영옥, 2001). 이 같은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이는 중요한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화하는 데 실패해 홀로 남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Masterson & Rinsley, 1975)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며 세상을 단순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경계선 성격 특성과 관련한 연구들(Fonagy, 2000; Fossati, Donati, Donini, Novella, Bagnato & Maffei, 2001; Trull, 2001; Barone, 2003)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불안정 애착, 특히 몰입형 애착 또는 와해된 애착 유형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여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김연, 2003 재인용). 김은숙(2010)과 김윤숙(2005)은 불안정 애착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고, 김연(2013)은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경계선 성격성향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아람(2012), 홍수연(2013), 이수지(2014)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학대 등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정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와 성격장애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최

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서적 확대의 높은 비율에 비해 아직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2) 경계선 성격 장애와 고통 감내력의 관계

경계선 성격 장애로 진단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증상의 심리적인 의미는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오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좌절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미디어에 등장하는 상징적 인물과 공상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심리적 고통과 좌절을 방어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약물과 알코올에 의존하며 방어를 하다 이것을 통해서도 진정되지 못하면 결국 고통스러운 감정을 아예 차단해 버리게 된다(조성호, 2012).

부정 정서 상태를 회피하지 않고 견디는 고통 감내력은 경계선 성격 장애 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고통을 감내하는 기술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치료를 위한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핵심 기제이기도 하다(Linehan, 1993). 경계선 성격장애의 치료를 위해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를 발전시킨 Linehan(1993)은 DBT의 핵심 가정이 강렬한 정서적 불편감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자주 '정서적 도피' 및 '정서적 회피'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DBT에서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정서를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정서적 자극에 집중하게 되어 그러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DBT의 주요원리는 정서적 고통의 수용이 오히려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일종의 정서 조절 기술에 속하는 고통 감내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서적 각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단서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Marra, 2005).

Linehan(1993)은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고통 감내력이 낮기 때문에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 정서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도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적응적인 환경을 선택하지 못한다(Linehan,1993). 부정적 정서 감내력이 빈약할 뿐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는 강렬한 정서 경험 방식은 유기공포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다양한 충동 행동으로 표현되기(Putnam & Silk, 2005) 때문이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서 자각력이 부족하였고(Lieble & Snell, 2004), 공포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Yen et al., 2002), 회피 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Bijttebier & Vertommen, 1999).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위해 정서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꺼려했다(Gratz, Rosenthal, Tull, & Lejuez, 2006). 정서적 회피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으로서, 부정적 내적 경험을 자각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이다(Hayes, Gifford, Follete, & Strosahl, 199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성인기에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보이는 비임상집단에 대해 고통 감내력을 치료요인으로 두고 개입을 하게 된다면 완전한 증후군으로 진단되기 전 어느 정도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와 강원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278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불성실한 응답 28부를 제외한 25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 측정 도구

1) 정서적 학대 척도

본 연구에서는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성혜(1992)가 개발한 아동학대 척도에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기 차원의 영역, 행동의 결과 차원의 영역, 행동 차원의 영역으로 하위영역이 나뉜다. 동기 차원의 영역에는 부모가 감정적으로 일관성 없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 문항(예, 1. 내가 특별히 잘못된 일이 없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했다)이 포함되고, 행동의 결과 차원의 영역에는 아동이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에 따른 문항(예, 7.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모님이 나를 꾸짖은 적이 있다)이 포함되며, 행동 차원의 영역에는 자녀에게 모욕감과 불안감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 문항과 언어적 학대 영역(예, 16.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가 죽어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해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던 기억을 회고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음(1점)’ ~ ‘자주 경험함(4점)’으로 평가되어 전체 점수의 범위는 24-9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고성혜(1992)가 보고한 정서적 학대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인(2007)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2)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경계선 성격 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PAI-BO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객관적 자기보고형 질문지(Morey, 1991)이다. Morey(1991)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한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를 정서통제, 정체감 문제, 부정적 관계, 기분의 안정성, 자기손상, 양가적 관계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질문지를 최은주 등(1999)이 번안하고 다시 권보배(2002)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권보배(2002)가 사용한 문항을 인용하였다. 질문은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점수는 각 문항의 척도 값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문항은 *1. 나는 기분이 매우 갑작스럽게 변한다, 13. 나는 때때로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18.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내 화를 모두 표현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Morey(1991)의 연구에서 .87~.91이었으며, 최은주

(1999)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81으로 나타났다.

3) 고통 감내력 척도

Simons와 Gaher(2005)가 개발한 고통 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DTS)는 심리적 고통상태를 경험하고 견디는 능력을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평정되며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imons와 Gaher(2005)는 고통 감내력 척도(DTS)가 감내력, 몰두, 평가, 조절과 같이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눈 반면, 박성아(2010)의 DTS 척도 변안 및 타당화 연구에서는 조절, 감내력과 몰두, 평가 등 총 3가지 하위요인을 제시하였으며 문항은 *1.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을 참기 힘들다, 8.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15.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을 느낄 때면, 그 고통이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적합치도(Cronbach'α)는 .91이었다. 고통 감내력 척도(DTS)의 전체 점수의 범위는 15~75점까지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번은 역채점 문항이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고, SPSS 20.0 프로그램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각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각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인구 통계적 변수에 따른 각 변수 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6)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의 각 요인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 통계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본 조사는 충청북도와 강원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53.2%, 여자가 46.8%로서 적절한 남녀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61.2%로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표 1> 자료의 인구 통계적 특성

		(N=250)	
		빈도	%
성별	남	133	53.2
	여	117	46.8
	합계	250	100.0
연령	20	53	21.2
	21	55	22.0
	22	28	11.2
	23	31	12.4
	24	50	20.0
	25	18	7.2
	26	9	3.6
	27	2	.8
	28	3	1.2
	29	1	.4
	합계	250	100.0
종교	종교 없음	153	61.2
	개신교	45	18.0
	천주교	19	7.6
	불교	30	12.0
	기타종교	3	1.2
	합계	250	100.0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Nunnally(197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신뢰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0.80을 상회하는 수치로 나타나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는데 본 연구의 요인추출 모델로는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서 직각회전 중 Varimax 방식을 택하였으며, 이 때 요인의 수는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이상인 범주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50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한다(송지준, 2011). 본 연구에서 모든 변수의 KMO 값이 .80을 넘어서 요인분석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표 2> 정서적 학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N=250)

구분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정서적 학대 1	.80	.05	-.24
정서적 학대 4	.78	.18	.03
정서적 학대 7	.74	.10	.17
정서적 학대 5	.70	.18	.31
정서적 학대 8	.62	.28	.35
정서적 학대 10	.60	.29	.45
정서적 학대 6	.58	.15	.56
정서적 학대 2	.57	.27	.35
정서적 학대 13	.56	.28	.26
정서적 학대 3	.53	.21	.49
정서적 학대 9	.53	.35	.36
정서적 학대 14	.51	.45	.08
정서적 학대 17	.26	.80	.06
정서적 학대 19	.18	.78	.24
정서적 학대 18	.20	.70	.38
정서적 학대 22	.15	.69	.48
정서적 학대 16	.25	.68	.41
정서적 학대 21	.19	.63	.31
정서적 학대 24	.07	.62	.41
정서적 학대 15	.41	.57	.08
정서적 학대 23	.04	.27	.76
정서적 학대 11	.17	.33	.63
정서적 학대 20	.23	.46	.55
정서적 학대 12	.23	.40	.49
고유값	5.41	5.12	3.79
분산설명(%)	22.55	21.33	15.79
누적분산(%)	22.55	43.88	59.66
신뢰도		.95	
요인분석의 적절성	KMO	.93	
	Bartle의 구형성 검증 유의수준	.00	

정서적 학대의 신뢰도는 .95로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KMO 값이 .93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요인분석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인적재량이 모두 0.4이상을 보이고 있어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N=250)

구분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경계선2	.73	.24	-.11	.21	.01	-.08
경계선4	.71	.17	-.14	-.01	.18	-.09
경계선5	.69	.33	.00	-.04	-.12	-.21
경계선1	.69	.21	-.02	.28	-.09	-.09
경계선13	.58	.01	-.08	.40	.10	.26
경계선8	.13	.75	-.06	.07	.17	-.21
경계선9	.19	.64	-.03	.05	-.11	-.12
경계선15	.06	.60	-.05	.33	-.03	.01
경계선18	.23	.60	.01	.10	-.03	.29
경계선6	.26	.53	-.23	-.04	.35	-.26
경계선16	.34	.50	.00	.15	.12	.21
경계선20	-.01	.12	.75	.04	.07	-.25
경계선7	-.16	-.13	.69	-.04	.06	.30
경계선14	-.02	-.08	.68	.00	.02	.35
경계선10	.15	.35	.47	.23	.34	.13
경계선3	.38	.31	.45	.06	.34	.05
경계선22	.11	.18	.17	.81	-.11	-.08
경계선23	.31	.23	-.03	.65	-.11	-.02
경계선21	.33	.15	-.16	.55	.17	.15
경계선24	.31	.10	.29	.51	-.20	.17
경계선19	.00	.03	.39	-.17	.69	.10
경계선11	.34	.41	.27	-.10	.47	.21
경계선17	.21	.41	-.28	.29	.46	.06
경계선12	-.17	-.03	.12	-.05	.03	.76
고유값	3.30	3.18	2.48	2.26	1.49	1.38
분산설명(%)	13.76	13.26	10.34	9.42	6.20	5.75
누적분산(%)	13.76	27.02	37.36	46.78	52.97	58.73
신뢰도				.81		
				KMO		.84
요인분석의 적절성				Bartle의 구형성 검증 유의수준		.00

경계선 성격장애의 신뢰도는 .81로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KMO 값이 .8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요인분석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인적재량이 모두 0.4이상을 보이고 있어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고통 감내력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N=250)

구분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고통 감내력13	.76	.17	-.05
고통 감내력14	.73	.06	-.10
고통 감내력15	.69	.33	-.19
고통 감내력8	.69	.21	.00
고통 감내력11	.65	.31	-.13
고통 감내력12	.65	.47	.02
고통 감내력9	.57	.19	.17
고통 감내력7	.51	.41	.17
고통 감내력3	.29	.86	-.07
고통 감내력1	.07	.86	.07
고통 감내력2	.25	.81	.01
고통 감내력4	.40	.68	-.29
고통 감내력10	.55	.60	.13
고통 감내력5	.48	.52	-.04
고통 감내력6	-.04	-.01	.95
고유값	4.34	3.92	1.15
분산설명(%)	28.92	26.17	7.64
누적분산(%)	28.92	55.08	62.72
신뢰도		.90	
요인분석의 적절성	KMO	.91	
	Bartlett의 구형성		.00
	검증 유의수준		

고통 감내력의 신뢰도는 .90로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KMO 값이 .91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요인분석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인적재량이 모두 0.4이상을 보이고 있어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주요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고통 감내력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데 (Kline, 2005),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인들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가능점수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N=250)	
					왜도	첨도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24-96	24-84	36.72	12.54	1.17	.90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24-168	24-84	38.32	12.59	1.11	.74
고통 감내력	15-105	24-86	40.17	12.54	.99	.51

4.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상관관계분석

(N=250)

	성별	연령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성별	1			
연령	-.367**	1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090	-.078	1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208**	-.114	.364**	1
고통 감내력	-.021	.039	-.416**	-.596**

*p<.05, **p<.0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고통 감내력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정적($r=.21$, $p<.01$) 상관을 보였다.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은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r=.36$, $p<.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고통 감내력은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r=-.42$, $p<.01$),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r=-.60$,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5.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인구 통계적 변수 중 성별 각 변수 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5, p<.01$).

<표 7> 성별 차이 검증

(N=250)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아동기 정서적 학대	남	1.49	.54	-1.43
	여	1.58	.50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남	3.55	.78	-3.35**
	여	3.86	.65	
고통 감내력	남	4.62	1.00	.32
	여	4.58	1.03	

* $p<.05$, ** $p<.01$

인구 통계적 변수 중 종교별 각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차이가 있었다($F=2.92, p<.05$). 그러나 종교가 없는 사람과 개신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간에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차이가 없었고, 기타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계선 성격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종교를 가진 사람이 3

명으로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는 종교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애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8> 종교별 차이 검증

(N=250)					
변수	종교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종교 없음	1.54	.50	1.34	
	개신교	1.40	.42		
	천주교	1.71	.66		
	불교	1.55	.65		
	기타종교	1.65	.31		
	합계	1.53	.52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종교 없음	3.77	.68	2.92*	종교없음= 개신교=천 주교=불교< 기타종교
	개신교	3.52	.80		
	천주교	3.68	.95		
	불교	3.53	.70		
	기타종교	4.72	.35		
	합계	3.70	.74		
고통 감내력	종교 없음	4.54	.96	1.92	
	개신교	4.88	1.10		
	천주교	4.67	1.23		
	불교	4.55	.95		
	기타종교	3.51	.52		
	합계	4.60	1.01		

* $p < .05$, ** $p < .01$

6.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의 조절 효과

고통 감내력이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의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데에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점수를 z점수화 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중심화기법(zero-centering(홍세희,2005))을 사용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하고 예측변인의 1단계에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을 투입하고, 2단계에 조절변인이라 가정한 고통 감내력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변수, 즉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고통 감내력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대한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 1단계의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Delta F=37.91, p< .001$)과 2단계의 고통 감내력($\Delta F=93.64, p< .001$), 그리고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고통 감내력의 상호작용($\Delta F=10.53, p< .01$)변인 역시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 및 고통 감내력의 조절효과

(N=250)

단계	변인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β	R^2	ΔR^2	ΔF
1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36***	.13	.13	37.91***
2	고통 감내력	-.54***	.37	.24	93.64***
3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X 고통 감내력	.17**	.40	.03	10.53**

p<.01, *p<.001

Δ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ΔF 는 F의 변화량을 의미함

V. 논 의

본 연구는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해 고통 감내력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척도,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 고통 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DTS)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정도는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성인기에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 없이도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의 학대 경험, 특히 정서적 학대 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섭, 신민섭, 이훈진, 2007; 박혜원, 손정락, 2012; Gratz, Litzman, Tull, Reynold, & Lejuez, 2011)는 기존의 경험적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아동기의 외상적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격장애 발병의 핵심 요인이라는 Zlotnick 등(2003)의 연구와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 병리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Spertus, Yehuda, Wong, Halligm, & Seremetis, 2003)경험적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홍수연(2013)과 김연(2013)의 연구에서 도출된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와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이 다른 변인 없이 직접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인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고통 감내력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본 결과 고통 감내력은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지닌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위해 정서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꺼려한다는(Gratz, Rosenthal, Tull, & Lejuez, 2006)연구와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이 높아짐을 밝혀낸 박성아(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한 결과,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관계에 있어 고통 감내력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이 두 변인 사이에서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견뎌내는 고통 감내력의 정의로 봤을 때, 두 변인 사이에서 고통 감내력이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개인의 경험적 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1996; Gratz et al., 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경험적 회피는 고통 감내력과 상반된 개념이다. 또한 홍수연(2013)의 연구에서 경험적 회피가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으로 가는 경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은

개인은 성인기에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면 과거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라도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의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가진 내담자의 상담에서 고통 감내력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 장애가 청소년 후기나 초기 성인기에 발병한다는 것과 완전한 증후군으로 진단되기 전의 성격적 성향에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임상집단이 아닌 비임상집단, 그 중에서도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과의 관계에 대한 고통 감내력의 조절효과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아동기 시절의 정서적 학대가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시절의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에 영향을 미칠 때, 고통 감내력 향상을 통해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아동기 시절의 정서적 학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계선 성격 장애가 유발될 수 있지만, 성인기에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 경계선 성격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생이 아닌 충청북도, 강원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고, 연령 및 직업 등의 범위를 다양화 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연구를 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거나 임상적 기준에 부합되는 집단이 아니라 경계선 성격장애와 가까운 성향을 지닌 20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까지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임상집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 대해 과거의 일을 회고하여 작성하는 자기보고 측정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대상자가 부정적 질문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적인 방법이나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이뤄졌다. 따라서 성인기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이 변화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격장애의 변화 정도를 준거변수로 두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
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 감정표현
불능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76-91.
- 김상섭, 신민섭, 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
표상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7
03-715.
- 김아다미 (2001). 아동의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 (2005).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초기 부모 애착과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2010). 경계선 성격 성향에 대한 기질, 양육태도 및 애착간의
경로모형검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현명호 (2012). 사회적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
서지각. 청소년학 연구, 19(2), 255-274.
- 김혜련 (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
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은, 박경, 고은빈, 남해천 (2009). 우울과 고통 감내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2009
No. -,
- 김혜인, 김은정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
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 정서 표현 억제의 매개 효과.

-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2007, 214-215.
- 남영옥 (2001).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특성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 59-88.
- 문나영 (2009). 아동학대를 받은 대학생의 qnwr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지영 (2012). 거부민감성 및 부정적 정서강도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간의 관계: 주의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아 (2010).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감내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원, 손정락 (2012). 성인초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자의 기질,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애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1-16.
- 보건복지부 (2013).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송구슬 (2010).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2011).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 21세기사
- 양혜미 (2013). 대학생의 사회지향성, 고통 감내력과 폭식행동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지 (2014).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아람 (2010).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은 (2012). 이성 관계에서 경계선 성격성향자의 부정적 관계지각,

- 정서적반응성, 행동 경향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환 (2013).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군의 정서조절 능력: 억제 기능, 과민반응, 조절곤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조현 (2004).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불안 및 공격성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하연 (2012). 역기능적 신념, 고통수준과 고통감내력이 사회적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PASAT-C과제와 자기보고식 검사를 활용하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하연, 조용래 (2012).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신념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사회적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Vol. 12 No. 3,
- 정지현, 권석만 (2013). 고통 감내력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 : 탈중심화와 회피적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 32 No.3,
- 조성호 (2012). 경계선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조현정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2005). 경계선 정신병리와 자기파괴성의 위험요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중현 (2013).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비행청소년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서경험의 양상.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원 (2014). 아동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자기 통제력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혜정 (1993).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부모, 자녀, 전문가의 지각. 숙명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추소정 (2002). 정서적 학대와 자아 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홍수연 (2013).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 정서 인식의 명확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Washington, DC: Author.

Anestis, M. D., Selby, E. A., Fink, E. L., & Joiner, T. E. (2007). The multifaceted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dysregulated eating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0*, 718-726.

Barone, L. (2003). Developmental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tudy using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5*(1), 64-77.

Beck, A. T., Freeman, A., & Davis, D. D. (2007).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Bijttebier, P., & Vertommen, H. (1999). Coping strategies in relation to personality disord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5), 847-856.

- Bornovalova, M. A., Gratz, K. L., Delany-Brumsey, A., Paulson, A., & Lejuez, C. W., (2006). Temperamental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inter-city substance users in residential treatment.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0(3)*, 218-231.
- Braver, M., Bumberry, J., Green, K., & Rawson, R. (1992). Childhood abuse and cur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52-257.
- Brier,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an.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1.
- Brown, R., Lejuez, C., Kahler, C., & Strong, D. (2002). Distress tolerance and duration of past smoking cessation attemp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180-185.
- Buckner, J. D., Keough, M. E., & Schmidt, N. B. (2007). Problematic alcohol and cannabis used among young adults: The roles of depression and discomfort and distress tolerance. *Addictive Behaviors, 32*, 1957-1963.
- Ferguson, K. S., & Dacey, C. M., (1997). Anxiety, depression, and dissociation in women health care providers reporting a history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1*, 941-952.
- Fonagy, P. (2000).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sychoanalytic Association, 48(4)*. 1129-1146.

- Fossati, A., Donati, D., Donini, M., Novella, L., Bagnato, M., Maffei, C. (2001). Temperament, character, and attachment pattern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5(5), 390-402
- Glaser, D. (2002).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sychological maltreatment): A conceptual framework. *Child Abuse & Neglect*, 26, 697-714.
- Gratz, K. L., Litzman, R. D., Tull, M. T., Reynold, E. K., & Lejuez, C. W. (2011).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and childhood personality features: The moderating role of personality traits.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y*, 42(3), 493-508.
- Grinker, R., Werble, B., & Drye, R. (1968). *The borderline syndrome: A behavioral study of ego functions*. New York: Basic Books.
- Hart, S., Binggeli, N., & Brassard, M. (1998). Evidence of the effect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Journal of Emotional Abuse*, 1, 27-58.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64(6), 1152-1168.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68 Books.
- Hornor, G. (2008).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Journal of Pediatric*

- Health Care*, 22(4), 234-239.
- Hornor, G. (2010). Child sexual abuse: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4(6), 358-364.
- Hornor, G. (2012). Emotional maltreatment.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6(6), 436-442.
- Kent, A., Waller, G. (1998). The impact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An extension of Child Abuse and Trauma Scale. *Child Abuse & Neglect*, 22(5), 393-399.
- Kernberg, O. T.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lein,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ib, K., Zanarini, M. C., Schmahl, C., Linehan, M. M., & Bohus, M.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Lancet*, 364, 453-461.
- Leventhal, J. M. (2003). 'The Battered-Child Syndrome' 40 Years Later, *Clinical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8(4), 543-545.
- Leyro, T. M., Zvolensky, M. J., & Bernstein, A. (2010). Distress tolerance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and disorder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6(4), 576-600.
- Lieble, T. L., & Snell Jr, W. E.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multiple asp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393-404.
- Linehan,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nehan, M. (2014).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위한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 (조용범 역)
- Marra, T. (2005).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in Private Practice*, Oakland, CA: New Harbinger Press.
- Marziali, E. (1992). The eti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al factors. In J. F. Clarkin, E. Marziali & H. Munroe-Blum (Eds.),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Masterson, J. F., Rinsley, D. B. (1975). The borderline syndrome: the role of mother in the genesis and psychic structure of the borderline personal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6(2), 163-177.
- Moeller, T.P., Bachman, G.A.& Moeller, J.R. (1993). The combined effects of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during childhood :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for woman. *Child Abuse & Neglect*, 17, 623-640
- Nock, M. K., & Mendes, W. B. (2008). Physiological arousal, distress tolerance, and social problem-solving deficits among adolescent self-injur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28-38.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Paris, J. (2002). Chronic suicidality among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Services*, 53, 738-742.
- Peterson, G. W., & Rollins, B. C.(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 M. B. Sussman, &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 Pianta, R. B., Egeland, B., & Erickson, M. F. (1989). The antecedents of maltreatment: Results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 Research Project.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203-25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K., & Silk, L. R. (2005). Emotion dys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899-925.
- Simon,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 Spertus, I. L., Yehuda, R., Wong, C. M., Halligm, S., & Seremetis, S. V.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and Neglect*, 27, 1247-1258.
- Steele, B. (1980). *Psychodynamic factors in child abuse*. In C. H. Kempe, & Helfer, R. F (eds.), *The Battered Child* (3rd ed), 49-87.
- Stone, M. H. (1990). *The fate of borderline patients: Successful outcome and psychiatric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Straus, M. A. (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3), 223-238.

- Szur, R. (1987).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P. Maher(ed.), *Child Abuse: The Educational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 Torgersen, S., Kringlen, E., & Cramer, V. (2001). The prevalence of personality disorder in community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8*, 590-596.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1.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 33-41.
- Trull, T. J. (2001).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and putative ethological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471-481.
- Widiger, T. A., & Trull, T. J. (1993).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In: Sutker, P.B., & Adams, H.E.(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pathology*(2nd ed). Plenum Press, New York, 371-394.
- Yen, S. Sr., Shea, M. T., Barrle, C. L., Johnson, D. M., Zlotnick, C., & Dolan-Sewell, R. et al. (2002). Traumatic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orderline, schizotypal, avoidant, and obsessive Longitudinal Personality Disorders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 510-518.
- Zlotnick, C., Johnson, M. D., Yen, S., Battle, C. L., Sanislow, C., Skodol A. E., et al. (2003). Clinical features and impairment in woma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BPD) with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BPD without PTSD, and other perconality disorders with PTSD.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1(11), 706-713.

Zvolensky, M. J., & Otto, M. W. (2007). Special series affective intolerance, sensitivity, and processing: *Advances in clinical science introduction*. *Behavior Therapy*, 38(3), 228-233.

Zvolensky, M. J., Leyro, T. M., Bernstein, A., & Vujanovic, A. A. (2011). Historical perspective, theory, and measurement of distress tolerance. In Zvolensky, M. J., Bernstein, A., & Vujanovic, A. A.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Zweig-Frank, H., & Paris, J. (1991). Parents emotional neglect and overprotection according to the recollections of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48, 649-651.

Abstract

The Influence of Emotional Abuse 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 Moder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Kim, Jeong yun

Major in Clinic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motional Abuse 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and also the moder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between two variables.

The study participants(250 adults) were drawn from several universities in S.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20.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abuse significantly had a positive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the emotional experience in childhood is an

important factor personality disorder in adulthood. Second, distress tolerance significantly had a negative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ird, distress tolera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such that emotional abuse led to the high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y people who had low levels of distress tolerance than by people who had high levels of distress tolerance.

These results revealed that emotional abuse and distress tolerance simultaneously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a intervention program for people who had high level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influence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in adulthood can be alleviated by the third factor such as emotional abuse.

부 록

부록 1. '경계선 성격 장애' 척도

부록 2. '아동기 정서적 학대' 척도

부록 3. '고통 감내력' 척도

부록 1. '경계선 성격 장애' 척도

▶ 다음의 항목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기분이 매우 갑작스럽게 변한다.	1	2	3	4	5	6	7
2.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한다.	1	2	3	4	5	6	7
3. 나의 대인관계는 매우 불안정했다.	1	2	3	4	5	6	7
4. 내 기분은 아주 강렬해지곤 한다.	1	2	3	4	5	6	7
5. 때때로 나는 몹시 공허한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7
6.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고 싶다.	1	2	3	4	5	6	7
7. 내 기분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많이 걱정한다.	1	2	3	4	5	6	7
9. 한 때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켰다.	1	2	3	4	5	6	7
10. 나는 분노를 거의 통제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11. 나는 종종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1	2	3	4	5	6	7

12. 나는 매우 외롭다고 느낄 때가 거의 없다.	1	2	3	4	5	6	7
13. 나는 때때로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1	2	3	4	5	6	7
14. 나는 언제나 아주 행복하다.	1	2	3	4	5	6	7
15.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없다.	1	2	3	4	5	6	7
16. 나는 친구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몇 번의 중요한 실수를 했다.	1	2	3	4	5	6	7
17. 화가 났을 때, 나는 보통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1	2	3	4	5	6	7
18.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내 화를 모두 표현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1	2	3	4	5	6	7
19. 나는 쉽게 지루해 하지는 않는다.	1	2	3	4	5	6	7
20. 한 번 누군가와 친구가 되면, 우리는 계속 친구로 머문다.	1	2	3	4	5	6	7
21. 나는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	1	2	3	4	5	6	7
22. 나는 돈을 너무 쉽게 써버린다.	1	2	3	4	5	6	7
23. 나는 신중하지 못하다.	1	2	3	4	5	6	7
24. 나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1	2	3	4	5	6	7

부록 2. ‘아동학대 척도 中 정서적 학대’ 척도

▶ 다음은 성장기에 부모님이 보일 수 있는 행동 및 언행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15-24번은 부모님으로부터 각 문항의 내용과 같은 말을 들어본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항목	한번도 없었음	드물게 경험함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1. 내가 특별히 잘못된 일도 없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했다.	1	2	3	4
2. 부모님은 꾸중을 듣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먼저 나에게 욕부터 했다.	1	2	3	4
3. 부모님은 다른 형제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다.	1	2	3	4
4. 부모님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때가 있었다.	1	2	3	4
5. 내가 부모님에 대해 증오심을 품을 정도로 나를 꾸짖은 적이 있었다.	1	2	3	4
6. 부모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다가 부모님이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	2	3	4
7.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모님이 나를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8.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9.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10. 내가 집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만하게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적이 있다.	1	2	3	4
11.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다.	1	2	3	4
12.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나의 옷을 벗긴 채 벌을 세운 적이 있다.	1	2	3	4
13.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나를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	1	2	3	4

14.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거나 부숴 버린 적이 있다.	1	2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15-24번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래 질문과 같은 말을 들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15.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를 괜히 낳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16.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가 죽어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17.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 같은 애는 너무 키우기 힘들어 내 다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 부모라고 부르지 마라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19.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20.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잖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21.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골치 덩어리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22.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 같은 아이는 정 떨어진다. 지겹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23.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를) 팔아버려야겠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24.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를) 죽여버릴까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부록 3. '고통 감내력' 척도

▶ 각 문항을 읽고 평상시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그맣다	금방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을 참기 힘들다.	1	2	3	4	5	6	7
2. 고통스럽거나 속이 상한 감정을 느낄 때면 그 감정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된다.	1	2	3	4	5	6	7
3.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을 다루기 어렵다.	1	2	3	4	5	6	7
4. 고통스러운 감정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거기에 완전히 압도된다.	1	2	3	4	5	6	7
5.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1	2	3	4	5	6	7
6.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을 견뎌낼 수 있다.	1	2	3	4	5	6	7
7.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은 수용할만한 것이 아니다.	1	2	3	4	5	6	7
8.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1	2	3	4	5	6	7
9.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을 나보다 잘 견뎌내는 것 같다.	1	2	3	4	5	6	7
10.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은 항상 나에게 큰 시련이다.	1	2	3	4	5	6	7
11.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이 느껴질 때면 내 자신이 부끄럽다.	1	2	3	4	5	6	7
12.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이 두렵다.	1	2	3	4	5	6	7
13.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을 멈추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1	2	3	4	5	6	7
14.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이 느껴지면 즉시 뭔가를 해야 한다.	1	2	3	4	5	6	7
15. 고통스럽거나 속상한 감정을 느낄 때면, 그 고통이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된다.	1	2	3	4	5	6	7